



유통가 '비대면'에 집중하다

광주 롯데백 '홈결제 서비스' 30일까지 구매액 1%페이백 실시간 '라이브 방송' 확대도 이마트 24 '배달비 무료' 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지역 대형 유통가들은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해 '집콕' 소비가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추석 전 비수기에 들어간 광주지역 백화점·아웃렛 업계는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홈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월드컵점은 오는 30일까지 '홈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의 1% 상당을 엘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홈결제 서비스는 롯데의 자체 간편결제 모바일 앱 '엘페이'를 이용해 구매와 포인트 적립, 예누리 적용, 모바일 사은행사 참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 영업 시간 동안 상품 구매를 원하는 매장에 소셜미디어, 전화 등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엘페이'를 통해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해당 상품은 집으로 배송되며, 결제 뒤에는 모바일 영수증을 활용해 사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홈결제 서비스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면과 비대면 소비 방식을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매장은 실시간으로 상품 소개 영상을 송출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리방)도 강화했다.

매장 직원의 전문적인 진행을 통해 상품 정보를 얻고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월드컵점은 오는 30일까지 '홈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의 1% 상당을 엘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벌인다. <롯데쇼핑 제공>

박병의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업기획팀장은 "롯데백화점은 매장 방문이 불안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쇼핑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실 수 있는 쇼핑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 편의점은 '배달비 무료'를 내걸며 비대면 고객 잡기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네이버 주문하기' 서비스로 이마트24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달(기준 배달료 2400원)을 받을 수 있다.

제휴카드로 '카카오톡 주문하기'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3000~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배달앱 '요기요'에서 이마트24 배달을 시킬

때 2만원 이상 구매하면 3000원 할인해준다. 거리두기 강화와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광주지역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40여 개 이마트24 점포의 이달 1일~23일 배달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편의점 업계는 주택가 점포를 중심으로 식재료나 과일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중심으로 구색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물 업계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고객들이 많이 찾는 생필품 위주로 재고 관리를 강화하고 배송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홈 관중'을 위한 주류와 먹거리가 인기다. <이마트 제공>

올림픽 '집콕'에 주류·안주 매출 급증

이마트 피코크 안주 224% ↑ 와인 37%·맥주 32% 증가

방역지침 강화에 집에서 올림픽을 즐기는 '집콕' 문화가 주를 이루면서 주류와 안주 매출이 덩달아 늘었다.

28일 광주지역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매장의 이달 1~26일 주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와인은 36.8%나 늘었고, 맥주(32.1%), 소주(17.2%)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마트 측은 외부 생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주류를 대량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최근 들어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와인 이 대종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대표적인 '홈술' 자

리에 들었다. 주점에서 마시는 기분을 내기 위한 '홈바'도 유행하면서 칵테일용 위스키와 보드카, 진 등의 양주도 성장 추세다.

집에서 술과 곁들일 수 있는 안주도 인기다.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브랜드 '피코크' 안주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223.7% 증가했다.

집에서 요리하기 까다로운 '포장마차' 대표 안주들이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측은 안주류 구매 유형을 살펴보니 주류만 산 고객보다 안주를 함께 구매한 고객 비중이 4%포인트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올림픽 시청이 시작되면서 주류와 안주 먹거리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 포장마차 안주 등 집에서 쉽게 해먹기 어려운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안주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마에 폭염까지 채소가격 급등

시금치 kg 9000원...전년비 29% ↑

짧은 장마 뒤 2주째 이어지는 폭염에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광주양동시장에서 소매 판매된 시금치 1kg 가격은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28.6%(2000원) 올랐다. 일주일 전인 21일보다는 12.5%(1000원) 상승했다.

여름철 밭미 열무 1kg 값은 1년 전보다 40%(800원) 오른 2800원에 팔렸다. 일주일 전보다는 6.7%(-200원) 내렸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난주까지 오름세를 보였던 상추 가격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적상추와 청상추 각 100g 가격은 이날 1000원으로, 전주(21일)보다 28.6%(-400원) 하락했다.

깻잎(100g 1250원)과 양배추(1포기 3000원)은 1년 전, 1주 전과 같은 가격을 나타냈다.

aT 측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호냉성 작물인 시금치와 열무가 생육 저하로 시장 내 반입량이 감소했다"며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품목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벌써 추석? ...대형마트 오늘부터 선물세트 예약 판매

품목·프리미엄 선물세트 확대

대형마트 3사가 추석 선물세트 판매 준비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29일부터 오는 9월8일까지 42일 동안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전국 점포와 롯데마트몰에서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예약 품목은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렸

다. 한우, 과일 등 신선식품 222종과 통조림, 식용유 등 가공식품 151종, 건강기능식품 84종 등 총 900여 개 품목을 마련했다.

프리미엄 선물세트는 전년보다 15% 가량 확대했다.

올해는 종이만으로 포장한 'ESG 선물세트'와 채식 소비자를 위한 '비건 선물세트'도 포함했다.

롯데마트는 사전 예약판매 매출이 전체 선물

판매 실적의 4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마련했다.

판매 기간 동안 행사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150만원 상당 상품권을 주며, 최대 30%를 깎아준다. 8대 카드로 쓰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29일~9월9일, 이마트는 다음달 5일부터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